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동아시아 새로 보기

장 원 석*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한국민주주의의 재평가 |
| II. 일본과 헤게모니 | V. 북한의 핵문제 |
| III. 중국의 도전 | VI. 맺는말 |

I. 머리말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미국의 동아시아 연구, 특히 한국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있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인 「한국전쟁의 기원」은 이 분야의 대작으로 평가된다. 1999년 그는 *Parallax Visions*(視差)¹⁾이라는 묘한 제목의 저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책은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자신의 몇몇 논문을 편집한 책이다.

커밍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자아준거적이며,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커밍스에 의하면 미국은 자신의 목표를 자명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간주하지만 미국적 합의는 검증되지 않은 그람시(Gramsci)적 헤게모니에 불과하다. 미국은 자신의 심상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질서의 창출을 시도하고 혹은 실패하는 주기적인 역사를 되풀이 해왔다. 미국은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커밍스는 비판적 시각에서 20세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연구를 재검토 할 것임을 천명하고 주제별로 역사적인 고찰에 돌입한다.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이 책에 대해서 커밍스가 동아시아에 대한 수십년 간의 연구 결과 미국의 자기애(自己愛)를 파괴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견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지의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또한 너무 현학적이며 지나간 시대의 역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²⁾

이 논문은 커밍스의 주장을 편의상 일본, 중국, 한국, 북한의 4가지 주제로 압축시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논리들을 살펴보려 한다. 평소에 미국의 지역연구가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에 의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Bruce Cumings,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at the End of the Century*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99).

2) 이 책에 대한 서평으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것. Robert A. Manning, "Armed and Dangerou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 1999). John E. Endicott, "Intellectual Rigor,"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6, No.1 (March, 2000), pp.71-74. Jon Thares Davidan, "Review of Bruce Cumings,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t the End of the Century*," *H-US-Japan. H-Net Reviews* (July, 1999). Mark T. Berger, "Review of Bruce Cumings,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t the End of the Century*," *H-US-Japan. H-Net Reviews* (Dec, 1999).

해서 오염되었음을 강조해온 커밍스는 동료들로부터 본인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언을 받기도 하는 터이라. 그가 만일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을 입안하는 지위에 오른다면(?) 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며 그의 주장을 검토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II. 일본과 헤게모니

1. 이 책은 몇 개의 장에서 일본을 다루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전쟁의 모랄에 관한 논의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폭투하가 과연 정당했는지를 문제삼고 있다. 태평양전쟁의 시작과 종결을 상징하는 두 사건인 진주만 공습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에 대한 커밍스의 주장은 이렇다. 진주만 공습의 경우 목표는 군사시설에만 집중됨으로써 군인희생자가 2335명인 반면 민간인 사망자는 68명에 불과하였다. 공습은 군인과 민간인을 분리하여 고도로 정교하게 시도되었던 것이다. 커밍스에 의하면 또한 일본의 선제공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참전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명분으로 자행된 원폭투하, 특히 나가사키의 경우, 대량학살(genocide)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일본본토 상륙과정에서 예상되는 수 만명의 미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수십만의 민간인을 희생시킨 조치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인종주의의 발로였다. 커밍스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쟁은 원폭의 사용 없이도 일찍 종결될 수 있었으며 본토상륙 작전의 가능성도 희박했다고 본다.

2. 이제 20세기 일본의 위상과 21세기의 전망을 논하는 다른 장들을 살펴본다. 우선 커밍스는 중국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간주한다. 그것은 커밍스의 헤게모니론이 기술과 산업을 국력의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보다 헤게모니 이전(移轉)에 더욱 접근해 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다." (225) 커밍스의 일본론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본이 개항 이후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유럽의 헤게모니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으며, 일본은 결코 미국과 다른 이질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근래에 들어 일본의 도전이 위험한 수준에 진입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은 첫 번째 주장의 논리적 연장이다.

일본에 대한 서구사회의 인식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두 개의 극단을 왕복해 왔으며 미국 역시 그들에 대해 이중적인 심상을 갖고 있다. 20세기 초 영국의 페비안주의자(Fabians)들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계몽적인 국가이며 미래 사회주의의 희망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 중 일본은 전쟁의 특수(特需)에 탐닉하는 재갈(jackal)로서 비난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 한 때 미국은 일본 경제의 재건에 환호하였으나 오늘날 미국은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를 통쾌해 한다. 대체적으로 치열한 산업경쟁의 시기나 세계경제의 쇠퇴기에 일본의 성공은 다른 국가의 반발을 야기시켰으며, 이 경우 서구사회는 일본을 이단적이고 신비적인 국가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커밍스에 의하면 일본의 본질에 변화는 없다. 바라보는 주체의 인식에 변화가 있을 뿐이다. 커밍스는 일본이 독자적인 노선이나 체제를 고집하는 국제적 질서의 교란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서구와 동일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궤도를 밟아왔다.

커밍스의 분석틀은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헤게모니(hegemony)론을 원용하는 정치경

제학이다. 자본주의 국가질서체계의 메카니즘으로서 헤게모니는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의 개념을 포괄하며 때로는 비공식적 제국주의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커밍스에 의하면 헤게모니는 홉스(Hobbes)적인 물리력을 동원함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힘이다. 헤게모니는 중심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생산력의 우위를 본질로 한다. 군사력은 현존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26, 27). 커밍스는 20세기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와 일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A. 1900-1922: 영국과 미국의 헤게모니하의 일본
- B. 1922-1941: 미국과 영국의 헤게모니하의 일본
- C. 1941-1945: 동아시아 지역헤게모니의 주체로서 일본
- D. 1945-1970: 미국의 헤게모니하의 일본
- E. 1970-1990s: 미국과 유럽의 헤게모니하의 일본

러일전쟁의 승리로 황색돌풍을 일으킨 후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에 접근을 시작한 일본은 영국, 미국, 독일 등과 차례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제2인자적 지위를 향유해왔다. 커밍스에 의하면 C의 시기를 제외한다면 일본은 금세기 내내 기술과 자원을 서구의 헤게모니체제에 의존해 왔으며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설정한 행동의 규칙을 순순히 수용해 왔다. 일본은 일시적으로 보호주의, 중상주의적인 국가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크게 볼 때 자유무역주의와 대외협력을 추구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태평양전쟁은 미일관계에 있어서 일탈적인 행동이 된다. 미국이 석유수출 금지조치를 통해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행사하였을 때 그것은 일본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일본의 지도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전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커밍스는 설명한다(31).

전후에 시작된 냉전과 더불어 미국은 딘 애치슨(Dean Acheson), 조지 케난(George Kennan),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등의 기획을 통해서 일본을 세계체제 속으로 복귀시켰다. 미국의 원격조정 속에서 소생한 일본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정책은 적과 동지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일본의 행동은 중대한 제약 - 일본은 잘해야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잘해서는 안된다 - 을 받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왔고 1947년의 체제는 지금까지도 작동 중이다.

3. 미국의 헤게모니가 언제까지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는 법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세기가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회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반면,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전자통신 분야의 하이테크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역전되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일본은 거품경제의 시련과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은 정말로 미국을 위협하는 차세대의 주자인가? 일본의 도전은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 일본의 패권가능성에 논의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일본이 끊임없이 경제전쟁을 도발해 왔으며 그것은 이미 위험한 수준에 접근해 있고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일본 예찬론자인 에즈라 보겔(Ezra Vogel)은 일본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대체 중일 수 있음을 상반된 맥락 속에서 주장하였다. 로젠탈(A. M. Rosenthal)은 일본의 군부와 우익세력이 새로운 제국을 꿈꿀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하였으며, '대동아공영권'(the Greater Asian Co-Prosperity Sphere)의 망령에 대한 우려가 부활되었다. 일본과 독일이 전쟁의 교훈을 잊고 과거의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투적인 주장이 되었다. 커밍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들의 논리는 비록 소련이 사라졌지만 미국은 일

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커밍스가 볼 때 이들의 상황 인식은 냉전하의 양극체제가 유지해온 장기적 평화에 대한 향수에 기인한다.(222) 또한 커밍스에게 이들 현실주의자들(realists)의 위기의식은 탈냉전시대 속에서의 입지 강화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대한 커밍스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이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일본이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성의 출구는 기술진보이다. 그러나 커밍스에 의하면 1990년대 말의 시점에서 볼 때 일본은 반도체, 컴퓨터, 고화질 텔레비전, 항공기 등 어떤 분야에서도 미국을 앞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에 잠시 일본의 전자산업에 의해 위협을 받았으나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진 클로드 데리안(Jean-Claude Derian)의 논리를 원용한다. 일본의 치명적인 취약점은 기술력의 “보호문화”(sheltered culture)이다.(218) 그리고 일본이 능란한 것은 노출된 기술영역에서의 혁신이며 신기술의 발견이 아니다. 양국은 연구개발(R&D)투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으며 미국의 엄청난 군사예산 역시 미국의 기술력 우위에 한 몫을 한다. 더구나 미국은 세계경제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력을 통해서 상품시장의 지배력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1993년 보수당지배에 의한 냉전구조를 청산하였다. 만년 야당이었던 사회주의자에 의한 집권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커밍스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커밍스에 의하면 대동아공영권론의 논리도 과장에 불과하다. 일본의 투자는 지역보다 세계를 지향한다. 경제위기 때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구출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통화기금 같은 조직이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일부 민족주의 세력만이 배타적인 지역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커밍스는 현실의 증명을 강조한다. 1947년 그리스와 터키의 관리를 미국에게 의뢰했을 때 영국의 헤게모니는 종말을 고했다. 만일 일본이 멕시코나 한국을 경제적 위기에서 구출하고, 이락을 웅장하며, 세계무역기구의 수장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세기는 끝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커밍스에 의하면 일본의 정상국가(normal power)론을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 커밍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20세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영국에 의해, 그후에는 미국에 의해 행동의 규제를 받는 국제질서의 구조 속에서 생존해 왔으며, 1945년 이후 한국과 대만 역시 마찬가지로의 행로를 밟아왔다. 나는 이러한 구조가 적어도 21세기 첫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205)

III. 중국의 도전

1. 나폴레옹은 중국이 잠을 깨면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게 중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커밍스에 의하면 미국의 중국전문가들은 언제나 중국의 광활한 토지, 유구한 역사, 거대한 인구의 은유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중국을 관찰해 왔다. 그러나 커밍스는 반세기 전에 행해진 조지 케난의 분석을 더 주목한다. 케난은 중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인 종합적 산업기반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 강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중심은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선 커밍스는 20세기 중국사를 개관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자신의 문명을 과시하며 외부의 야만과 담을 쌓아온 나라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외부의 방문객들이 문을 열기가 무섭게 급격히 중국은 붕괴하였다. 이후 시작된 굴욕의 역사는 1949년 모택동의 국가건설에 의해서 종료되었다. 중국은 한국전쟁

의 개입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위상을 드높였지만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오랫동안 지체되었다. 트루만(Harry Truman) 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은 중국을 포용하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구상한 바 있다. 애치슨의 계획은 중국을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서구에 의존토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애치슨은 케난과 마찬가지로 소련이 중국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며 중국은 결국 서방세계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북경과 모스크바를 분리시켜 중국을 무장해제 시키려했던 애치슨의 계획은 대만문제와 한국전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에 의해서 결실을 보았다. 중국은 1950년대에 들어 스탈린주의 공업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다. 모택동은 여세를 몰아 대약진 운동을 시도했으나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소련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모택동은 1961년 후르시초프의 미국방문을 비난하고 독자적인 자립 경제 건설을 표방한 후 문화혁명을 통해 내부적인 권력투쟁에 돌입하였다. 모택동의 사망은 중국혁명의 분수령이 되었다. 지휘권을 이양받은 덩소평은 모호한 행보에도 불구하고(커밍스에 의하면 덩소평은 좌수년도에는 개혁주의를, 홀수년도에는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을 전지구적 시장 질서 속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가입했으며 유럽으로부터 최혜국지위를 부여받았다. 중국정부는 1989년의 천안문사태 당시 계급투쟁의 구호를 다시 사용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는 저녁식사의 농담거리에 불과하게 되었고 문화혁명의 성지인 상해는 자본주의의 전초기지가 되었다.(160-161)

이 지점에서 커밍스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의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실체는?).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중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으로 완전히 편입될 것인가?)

2. 커밍스에 의하면 덩소평의 노선은 경제적 개방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공산당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덩소평의 전략은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국민소득 300불에서 4000불 사이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예상되나 이 지점을 통과하면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헌팅턴의 이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163) 그들은 과도기의 위기를 극복하면 공산당의 일당지배가 도전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커밍스는 중국의 현체제를 발전주의적 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로서 간주한다. 발전주의적 국가 모델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 하에 기술관료집단이 일련의 경제계획과 재정수단을 통해서 근대화를 추진하는 체제이다. 주룽지(Zhu Rongji)와 조자양(Zhao Ziyang)이 '새로운 권위주의'(new authoritarianism)를 표방했을 때 그것은 한국과 대만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조자양은 이 이론의 요점은 후진국의 근대화가 필연적으로 강력하고 권위적인 지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았다. 커밍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은 발전주의적 국가의 모델을 솔직하게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학자들은 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 수상, 장개석, 박정희, 이광요, 덩소평과 같은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해한다."(163) 커밍스의 판단에 의하면 덩소평은 중국의 박정희이다. "오늘의 중국은 경제를 앞세워 국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켰던 1970년대 초 박정희 권위주의 체제의 외관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 정보기구의 거대한 감시체제, 폭동경찰의 배치, 우수 대학의 폐쇄, 금서목록, 인신보호율의 부재, 반체제인사 고문. 중국적 특성을 갖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모방이다.... 다음 20년간 중국이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1970년 이후 한국과 대만이 밟아온 길을 돌아보면 된다."(164-165)

3. 중국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커밍스는 중국이 결국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상이한 문명의 진수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중력에 압도될 것이나 문화적 차이를 여전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근대 이후 지도자들이 서구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배제와 수용을 반복해온 나라이다. 아직도 여전히 개입의 원칙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커밍스는 중국이 결국 자본주의의 등위에 올라타게 될 것이며, 이웃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가 부과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즉 중국은 자본주의 질서 속으로 진입한 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동참하게 될 것이다. 커밍스는 중국이 해체되는 대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동남아 화교들 5백만 명의 투자에 의해서 거대한 중국이 출현할 것으로 본다. 특히 홍콩은 중국과 세계경제를 연결해주는 접합점으로서 중국의 자본주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대만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 중국은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등소평의 1국가 2체제 공식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 군부는 국방예산의 증액을 위해서 보수파와 함께 대만에 대한 강경발언을 시도하고 있다. 커밍스는 만일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해서 안되며 개입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한다. 대만이 민주화를 위해서 40년간 투쟁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던 미국이 이제 와서 개입의 명분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커밍스는 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통일은 등소평의 후계자(장택민이나 이붕)에 의해서 중국이 충분히 민주화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본다. 군사독재에서 해방된 대만이 북경의 권위주의에 굴복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167) 커밍스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과 세계경제와 사이에 해자(垓字)를 설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은 새로운 종주권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력사용을 원하는 제국주의자, 자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지식인, 부르조아 자유주의를 연주하는 당료, 농민의 중국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반동주의자, 정통의 이름으로 이단을 억압하려는 관공리들로 갈등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의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경주는 결국 동아시아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궤도를 완성시킬 관료와 기업 지도자들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그때 세계는 중국을 흔들 것이다.”(170)

4. 소련이 붕괴된 후 국방성의 입안자들은 미국의 전쟁대상을 중국과 이단적인 제3세계국가로 교체할 것을 주장해 왔다. 1994년에 행해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은 일본의 경제적 위협을 더 우려하고 있으나, 엘리트들 다수는 중국의 도전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중국의 독재체제와 팽창주의를 비판하면서 봉쇄조치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해왔다. 가령 카렌 엘리엇 하우스(Karen Elliott House)는 여타의 아시아국가들이 미국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매우 편집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양국은 이미 충돌궤도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현실론자들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패권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커밍스는 이러한 견해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기인한다. 커밍스에 의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무력사용을 자제하거나 매우 세심하게 행사해 왔으며 영토의 팽창을 인근지역에 국한시켜왔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문명적 우위를 강조하고 무력의 사용을 힘의 열세로 간주해 왔다 커밍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미덕을 보여왔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부드러운 경시(benign neglect) 태도이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빼앗은 것보다 베푼 것이 더 많았던 중국의 문명은 모범에 의한 선도를 시도해 왔다.”(169) 커밍스에 의하면 티벳(Tibet)의 정복은 예외적 사태가 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한다. 커밍스는 거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질적인 산업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무장관은 다음 50년 안에 아시아는

유럽과 미국을 합한 것 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과장은 지금의 성장률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있다. 마찬가지로, 1993년에 IMF는 중국 경제가 통상적인 판단보다 4배가 더 크며 세계 제3위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 혹자는 2010년까지 중국이 최고규모의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70%의 인구가 농업분야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농촌을 떠날 경우 어떤 산업과 도시의 직업이 이들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다는 사실이다.”(262:주 32) 커밍스는 일찍이 태프트(William Howard Taft)대통령이 ‘중국우선’(China-first)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다가 좌절했던 역사를 거론한다. 태프트의 의욕적인 만주경영계획은 선진산업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힘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태프트 행정부는 결국 일본과의 체계적인 전쟁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진주만 해군기지건설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29) 중국의 국방예산은 비공식적인 분야를 모두 고려해도 한국과 대만의 총합을 넘지는 못하는 수준이며 무기체제도 현대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커밍스는 중국의 봉쇄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경제력이 상쇄됨으로서 형성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169) 그러면 왜 우리는 중국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는가? 커밍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은 중국이 또 다른 무엇 - 좌표를 상실한 채 거액의 예산을 운용하는 국방성, 공격할 대상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신보수주의자, 도덕적 중심을 상실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미국의 이상주의자,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의 정치 - 을 상징하기 때문이다.”(169) 커밍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서구에 의해서 오랫동안 모욕의 역사를 강요받았다. 우리는 그 동안 중국을 충분히 흔들여 왔다. 따라서 이제는 서구가 겸손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덜 위압적인 정부, 법의 지배, 중국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권장하기 위해 미력을 다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는 장기적인 경제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171)

IV. 한국민주주의의 재평가

1. 커밍스는 시민사회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망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커밍스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인용하는 분석틀은 하버마스(J. Habermas)와 맥퍼슨(C. B. Macpherson)의 이론이다. 하버마스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개념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분석하였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모든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은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그것은 집단생활의 규범적 기초를 제공한다. 공공영역은 개개인이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개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다. 공공영역은 의회나 언론처럼 제도화된 정치적 의사교환의 망을 뛰어넘어 자율적인 사회집단의 조직을 통해서 형성된다. 공공영역으로의 진입에 장애가 존재해서는 안되며, 참여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토론에 임해야 하고, 토론은 모든 종류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하버마스 이론의 요점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시민사회의 목적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커밍스는 이러한 하버마스의 입장을 미국 퀘이커교(Quaker)의 평화주의 전통에 비유한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소요될 지라도 합의를 도출될 때까지 모든 문제를 토론한다.(101) 하버마스에 의하면 18세기 프랑스의 신문과 저널, 살롱과 커피하우스는 자유주의자들의 이상적인 정치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그것은 대중을 배격하며 협상하고 타협하는 상업적 이해의 무대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합리성에 대한 칸트적 신념,

이상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공공영역에 진입하는 개개인들이 권력과 재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상적인 대화상황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 마르크스 이후 좌파의 전통은 부르조아계급의 이해관계에 함몰된 시민사회의 자기극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시민사회의 주역인 지식인이 기득권에서 해방되어 민중과 하나가 되는 유기적 지식인인 될 것을 주장하였다. 커밍스에 의하면 하버마스는 좌파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106) 하버마스 이론에 대한 좌파의 비판은 맥퍼슨의 민주주의론과 직결된다. 맥퍼슨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만드는 체제이다. 그러나 불평등한 부의 분배는 인간의 자아실현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치적 평등은 무의미하게 된다. 커밍스는 맥퍼슨의 다원적 민주주의 비판의 논리에 공감한다. 슈페터(Joseph Schumpeter)와 달(Robert Dahl)은 권력을 추구하는 엘리트 집단간의 균형유지 기제를 민주주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맥퍼슨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시민의 미덕을 개발하기보다는 시민사회를 제약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117-118)

2.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저술가들은 시민사회가 서구체제에 내재적인 현상이며 동아시아체제 나 제3의 체제 속에서는 결여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동아시아의 비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논리 속에서 미국의 시민사회의 병리는 은폐되었고, 미국은 로크와 토크빌의 이상을 구현하는 사회로 미화되었다. 그들은 서구사회가 합리적 개인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치의 중요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커밍스에 의하면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정치적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시민사회의 쇠퇴를 우려하게 되었다. 모두가 동일한 정후 - 도시의 병리, 높은 범죄율, 도덕률의 붕괴, 가족의 해체, 정치적 무관심, 정치체제에 대한 냉소주의, 공적 토론의 질적 저하(특히 텔레비전의 경우),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 등 - 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를 등진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교외지역(suburbs)마저 이제 빗장이 닫힌 고립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로스 페로(Rose Perot), 뉴 김리치(Newt Gingrich), 패트릭 부캐년(Patrick Buchanan)과 같은 비판적 정치인의 등장은 이러한 대중의 불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96) 이들 정치인들은 1950년대를 미국의 황금시기로 간주한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문제의 근원을 관료의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보고 시장자유주의만이 시민사회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부활을 기대하려 한다. 그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가 미국적 자유주의의 쇠퇴를 초래중이라고 말한다.

3.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상당기간 19세기 독일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그것과 유사한 단계를 보여준다. 후발산업국가의 근대화는 독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를 유예하고 관료 집단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커밍스에 의하면 한국은 1993년을 기점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며,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꾸준한 발전과정을 밟고 있다. 커밍스가 묘사하는 한국의 민주화 역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 하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에 한국의 민중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청산 - 을 동시에 염원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일제잔재의 청산에 성공했으나 민주주의를 완전히 결여한 체제를 건설하였고, 남한은 약간의 잔재청산과 약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건설하였다.(112) 이승만정권의 강권정치는 학생, 교수, 지식인으로 하여금 시민사회의 전위집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공화국의 출범은 자유주의 모델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약진을 초래하였으며 서울은 살롱사회(salon society)로 활성화되었다. 평화봉사단원으로 1967-68년의 시기에 한국에 체류했던 커밍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나는 종종 다방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길가 곳곳마다 자리잡

고 있는 그곳에서는 활발한 정치적 토론이 전개되고 있었다....그들은 종종 집권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정치적 대화의 깊이에 놀라곤 했다. 그들은 모두가 미친듯이 신문을 읽는 것 같았다....나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너무 활력에 넘쳐있고 비판적이어서 지배엘리트들이 더 이상 관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113) 커밍스에 의하면 박정희는 헤겔적 국가의 한국판 담지자로서 고전적인 후발산업국가 지도자의 모델이다. 닉슨의 팜 독트린과 신중상주의 정책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자 박정희는 1972년 유신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성장하고 있는 공공영역의 잠재력을 간과하였으며, 시해사건이 있는 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마산과 부산, 광주에서 다시 한번 힘을 증명하였다. 1980-1987년의 시기는 고전적인 블뤼메르(Brumaire)의 역사였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비극을 희극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1980년 광주사태 당시 등장한 자생적 시민세력의 저항은 한국판 천안문 사태인 1987년 봄의 시민봉기로 승리를 쟁취하였다. 노태우정권은 최초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점차 해방된 노동의 도전을 억압하기 시작하였다. 커밍스는 1990, 1995년, 1997년의 세 번의 계기를 주의 깊게 분석한다. 1990년 집권당은 일본방식의 활로를 모색하여 온건야당을 흡수하고 민자당을 출범시켰다. 일부논평가들은 엘리트의 통합계약을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과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커밍스는 이것을 시민사회의 도전에 대한 스페터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말한다. 대중민주주의를 불신하는 오스트리아의 귀족주의자 스페터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엘리트의 순환을 보장하는 민주체제를 선호하였다. 일본의 자민당은 1955-1992년까지 이 모델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세대의 효력을 기대하였던 한국의 일당제 민주주의의 시도는 실패하였다. 커밍스는 실패의 원인을 일본과 달리 노동계를 배제한 것(노조의 정치참여 금지), 광주문제 청산 실패, 전라도 세력의 배제, 국가보안법과 좌파에 대한 탄압, 강력한 국가규제와 재벌의 저항들을 이유로 들고 있다.(115) 1995년에는 더욱 극적인 사태가 전개되었다. 김영삼정부가 예상을 뛰어넘어 군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에 들어간 것이다. 정권찬탈과 광주학살의 주역에 대한 재판으로 1961년 이후 계속되어온 군사독재의 유산이 청산되었다. 커밍스는 이 사건이 지난 시대 인류가 경험한 어떠한 민주화 이행과정보다도 놀라운 업적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구소련과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와 필리핀의 그것을 능가하였다. “그것은 신정권이 과거를 과거로 묻어두고 군인의 병영복귀를 허용했던 라틴아메리카, 약식재판으로 독재자 차우세스코(Ceausescu)를 처단하였으나 그의 체제를 그대로 방치했던 루마니아의 사태를 능가하였다...”(115) 김영삼의 반대파들은 이 사건이 대구-경상세력제압을 위한 조치이며 정치자금추문 불똥을 차단키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커밍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 볼 때 보다 중요한 요인은 교육과 성장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투쟁에 의해 세례를 받은 새로운 세대 검사집단의 등장이었다. 그들은 법의 지배 원칙을 능란하게 적용하였다.”(115) 1997년 12월 반체제인사로서 과거에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온 김대중은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임기 5년의 대통령직에 취임하였다. 그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한국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과제와 직면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앞으로 그가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4. 커밍스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저항운동의 기여를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투쟁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비전의 문명세력을 창조하였다. 커밍스는 특히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보여준 학생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1960년대 중반에 잠시 반짝하였던 서구의 학생운동과 달리 한국의 학생운동은 194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한국의 학생, 청년, 노동자는 민중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사회운동의 투쟁방식을 공공영역 속에 도입하여 미국의 패권

과 군사독재에 저항하였다. 커밍스에 의하면 그것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학생운동 - 시위와 시민적 불복종의 경계, 토론 및 축제와 풍부한 자기표현의 경계가 사라지는 - 의 고전적 사례였다.(117) 또한 많은 학생들이 그람시적인 입장을 취하여 노동계급과 연대하였고 위장노동자로서 투쟁을 하였다. 그들은 이제 활동을 중지하였지만 그들의 역할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미찌오 모리시마(Michio Morishima)는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사회적 계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관료적 민주주의, 미국과 비교할 때 덜 열악한 분배의 평등, 높은 수준의 보통교육으로 인해서 일본은 서구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커밍스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부가 더 평등하게 분배된 사회이며 매우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커밍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발달된 시민사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동계와 좌파가 체제 속에 편입된다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민주적인 체제가 될 것이다.(118) 커밍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헌팅톤과 이광요는 동아시아가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서구와는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질서와 권위를 보다 중시하고, 시민사회 없이 산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 두기로 하자."(117)

V. 북한의 핵문제

1.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주장하면서 발생한 핵사태는 양국을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놓았다. 커밍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미국의 천박한 언론과 무지한 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자칭 전문가들은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장과 허위로 일관하였으며 편집광적인 국가가 핵무기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미국의 언론과 정부의 전형적인 보도태도이다. 「뉴욕 타임즈」의 데이비드 생어(David Sanger)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스탈린주의 광신자들이며 테러리스트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건설중이며 워싱턴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다. 그들은 미친개 국가이다."라고 말했다. ABC의 특파원 크리스 버리(Chris Bury)는 "김정일은 자동차와 국가 테러리즘을 좋아한다는 사실밖에 아무 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인물이고, 북한으로 말하자면 경제는 파탄에 이르면서도 백만이 넘는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는 전시체제의 국가이다."라고 말했다. 닉슨과 부시정부의 중국전문가였던 리처드 솔로몬(Richard Solomon)은 북한이 고도로 고립되고 이념적으로 무장된 사회이며 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한 첫 번째 국가라고 못박았다. 커밍스는 미국이 북한에 관한 한 백지상태(tabula rasa)의 나라라고 말한다.(125) 커밍스는 역사적 문맥을 사상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논리가 갈등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커밍스는 사건의 본질을 다음의 5가지 명제로 정리한다.

① 북한은 내전의 논리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을 소련의 꼭두각시로 간주해왔다. ② 북한은 한국전 이후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려 왔으며 소련이 붕괴되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이용하여 이를 탈출하려 하였다. ③ 북한은 한국 및 일본과 대적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급체제와 국내용 원전을 필요로 하였으나, 미국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북한을 깡패국가로 몰아세웠다. ④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시체제를 가동하였다. ⑤ 양국의 강경파들은 이 사태를 위기로 몰아갔지만 결국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되었다. 이제 커밍스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2. 한반도 사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멀지 않은 과거에 이곳에서 내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흑자는 소련과 중국에서 나온 한중의 문서를 가지고 한국전쟁은 스탈린과 김

일성이 공모하여 도발한 국제침략전이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은 내전이었으며,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갈등이 내연된 후, 1946-1947년의 농민반란, 1948년의 게릴라전, 1949년의 국지전을 거쳐 1950년 전면전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첫째, 쌍방 모두의 입장에서 한국사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편의 시각에서만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 둘째, 전쟁은 교착상태에서 종료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을 뿐이다. 휴전선을 따라서 전개되는 긴장과 대결은 평양의 지도부에게 일상사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한국전은 잊혀진 전쟁이다. 따라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국가이며 한반도에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보도에 미국사회는 한 순간 경악한다. 북한은 40년 동안의 적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낮선 이단자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953년의 휴전협상은 한반도에서 모든 신무기체제의 도입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미국 합참본부는 전략상의 필요에 따라 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건의하였고 아이젠하우어(Eisenhower) 정부는 이 문제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국무장관 덜레스는 남과 북이 모두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쌍방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이승만과 김일성 모두가 한반도에서 발생할 대량파괴를 우려하여 전쟁도발을 재고하게 되리라는 판단에서였다. 1958년 미국은 핵탄두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였고 일 년 후에는 핵미사일 비행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1960년대 한국의 방어전략은 개전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1968년 푸에블로(Pueblo) 납치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최초의 반응은 평양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이었다. 한편, 핵무기의 전진배치는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위기의식을 초래하여 작은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130) 미국은 한반도의 핵무기배치로 남한과 일본의 자체적인 핵개발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으며 북경당국도 이것을 이해하였다. 한국의 핵무기는 한국인의 생명을 담보로 공산진영과 한일 양국을 동시에 봉쇄하는 이중적 효과를 갖고 있었다. 세계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인 '팀스피릿'(Team Spirit)을 주도했던 리처드 스틸웰(Richard Stilwell)은 방어용 혹은 공격용으로 핵무기 사용을 가장 선호했던 인물이다.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스틸웰은 접촉이 두절되는 경우 정부의 결정없이 독자적으로 화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부에 요청하였고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커밍스의 정보에 의하면 스틸웰은 포드(Gerald Ford)의 차기선거를 위해서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전쟁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도의 자제심을 발휘하였다.(131) 1980년대에 미국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반격(rollback)의 개념에 입각해 전략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핵무기 사용을 금했던 유럽과는 달리 북한이 남침할 경우 전쟁발발 한 시간 내에("H+1")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었다. 박정희정권이 1970년대 중반에 독자적인 무기개발을 시도했을 때 평양의 위기위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은 이에 따라 군사시설을 지하로 이전하였으며 70년 말에는 지상군의 80%를 휴전선에 전진배치 하였다. 커밍스는 한국정부가 이 사실을 북한의 침략징후로 선전했지만 사실은 한국군 및 일반 시민과 최대한 접근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이었다고 말한다.(132) 결국 북한은 한국전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핵 위협과 남한의 군비주도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식을 일관되게 취해온 것이다.

북한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이다. 북한은 과거 수 십년간 남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한국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남한의 에너지 사용이 주로 자동차와 가정용 소비에 집중되는 반면, 북한은 군사적이며 산업적 목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1992-1993년 북한의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사용

량 1486 단위(10의 15제곱 joule)중에서 석탄이 1047, 석유가 226, 수력이 176, 기타가 38 단위를 차지한다.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수입석유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북한은 에너지 위기상태를 맞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자급자족 체제를 고집하는 나라이다. 김일성은 북한이 산유국가가 아니지만 북한의 목을 조르는 미국 지배하의 세계석유체제에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건설은 여기에 정당성이 있다. 허버마스에 의하면 평양정권은 일본과 한국이 과거에 해온 일을 하려 했을 뿐이다. 차이가 있다면 북한의 경우는 열강이 핵연료 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에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이용하는 원자로를 건설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원자로가 고성능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우라늄으로부터 만들어 낸다는 사실에 있다. 커밍스는 모든 정황으로 판단할 때 북한의 원자로가 에너지 자급용이며 군사용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135-136) 커밍스에 의하면 북한은 에너지 자급을 목적으로 건설한 영변의 원자로를 미국과의 협상카드로서 십분 활용했을 뿐이다.

영국의 자유주의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뛰어난 사회공학자였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기체인 파놉티콘(panopticon)을 고안해냈다. 파놉티콘은 중앙의 감시탑에 의해서 모든 죄수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원형감옥이다. 벤담의 고안물은 푸코(Michel Foucault)에 의해서 현대권력의 메타포가 되었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사회는 군주의 권력에 의존함 없이 일상생활에 침투한 권력을 통해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슈퍼마켓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하여 우리의 지출내역을 검사하는가? 근대사회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산출해냈다. 1990년대에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질서의 수호자로서 활약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약소국가의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유일의 세계경찰국가이다. 미국은 자의적인 힘의 행사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벤담의 전통에다 보복(vengeance)을 추가하고 있다. 여기서 커밍스는 걸프전(1990-1991)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한다.(138-139) 그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미국은 공산세계를 감시하던 거대한 정보망과 감시체제를 제3세계의 문제국가에 대해 새롭게 가동시켰다. 걸프전을 통한 국방예산의 확보는 장차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액의 감시체제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북한의 핵사태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 이후 미국의 끊임없이 감시대상 국가였다. U-2기의 임무 중 하나는 한반도를 감시하는 것이었고 이에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북한은 지하로 도피한 후 위장게임을 시작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의 스파이위성이 제공한 항공사진에 의거하여 핵폐기물처리 의혹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CIA의 권고에 따라 문제지점의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플루토늄이 처리되고 있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미국의 정보부였다.

북한은 특별사찰의 요구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을 개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새로 취임한 클린턴은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팀스파릿의 종결을 포함하여 상당한 양보를 행하며 고위급회담을 개시함으로써 신망을 얻었다. 북한은 한편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여 일괄처리안을 제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만일 미국이 제재를 강요한다면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벼랑끝 외교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커밍스는 이것이 훌륭한 카드놀이에 불과하다고 본다. 평양은 미국의 강경파세력들이 - 클린턴과 그의 측근을 제외한 - 협상을 방해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 결과 1994년 4월 국방장관 페리(Perry)는 미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도발한다면 기꺼이 이를 감수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5월에는 워싱턴

에서 한반도 사태를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기 위한 전군지휘관회의가 열렸다. 군부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사상자 숫자가 8만에서 10만, 한국군의 경우 수십만 명의 희생이 따를 것이며, 전쟁비용은 이라크전 당시(600억)보다 더 많은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1994년 6월 클린턴 정부는 전쟁준비를 위한 제1단계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146) 그러나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한 미국은 같은 해 10월에 포괄적 협정안을 체결하였고, 원자로의 동결과 핵사찰 수용을 전제로 콘소시움에 의한 에너지 협력을 약속하였다. 커밍스는 “그 유명한 핵폐기장소를 IAEA가 사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원자력무기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처리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북한의 결백을 지지한다.(148) 커밍스에 의하면 북한이 영변의 핵 문제를 애매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노린다는 사실을 백악관 고위관료도 결국 인정하였다.(249:주61)

3. 커밍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약자는 강자와 싸울 때 보다 강하게 나오는 법이다. 북한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카드를 활용했을 뿐이다. 걸프전 당시 국방성의 손에 놀아났던 쥐 떼와 같은 (lemminglike)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 핵사태의 진실이 밝혀지자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제 IMF를 떠돌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북한이 성실하게 핵협상에 임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던 소수의 사람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록펠러 재단의 안소니 남궁(Anthony Namkung), 하와이 대학의 서대숙(Dae-sook Suh), 콜럼비아 대학의 스티븐 린튼(Steven Linton), 카네기 재단의 셀릭 해리슨(Selig Harrison) 그리고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이다.(149)

계속해서 커밍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한은 살기 힘든 나라이다. 그러나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들은 반세기의 일본제국주의와 반세기의 미국 패권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투구해왔다. 1개의 강대국이 특정국가를 강패국가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강패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일인가? 커밍스는 유엔헌장 제2조 1항의 의미에 대한 동료학자의 해석을 인용하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 “모든 국가는 주권을 소유하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가는 크기나 정부형태에 관계 없이 국제법의 한계 내에서 국사를 처리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150)

VI. 맺는말

이 책은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 지나치게 은유가 많고 논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혹은 ‘이곳에서 밝힐 수 없는 정보원에 의하면’ 등의 서술방식도 눈에 거슬린다. 필자는 여기서 커밍스의 논지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세기말 전환기의 세계체제에 대한 커밍스의 현실인식의 문제이다. 커밍스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체제는 사회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완전한 자본주의체제를 실현하였으며,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협력과 번영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세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폭넓게 실현 중이며, 유엔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었고, 자본과 노동의 대결은 협상과 적응의 기제 속으로 편입되었다. 선진자본주의국가의 민중운동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기술발전에 의해서 매개된 세계체제는 더욱 상호의존적이 되었으며, 그것은 24시간의 주식시장과 편재하는 세계화의 구호에 의해서 상징되었다.(222-223) 커밍스에 의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상호간의 갈등이나 지역주의(regionalism)의 발호에 의한 세계체제의 분열은 기우에 불과하다. 커밍스의 현실인식은 지나치게 나이브(naive)하고 낙관적이지 않은가? 그것은 마치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명제를 연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두에서 윌라스타인의 정치경제학을 분석틀로 원용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예고하면서 글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곳에서도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적 질서에 대한 희망을 논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그는 가치와 사실을 구별한 후 현상의 분석만을 행하는 실증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논의이다. 표면상으로 볼 때 커밍스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비판하며 그것의 실체를 분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때리는 만큼이나 또한 미국을 긍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은 결국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으며 세계는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평화는 미국의 헤게모니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커밍스가 예찬하는 오늘의 평화가 만일 냉전체제의 결실이라면 과거의 질서는 또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미국의 오만한 자유주의 전통을 비판하겠다는 커밍스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것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커밍스의 동아시아론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는 동아시아의 금세기 역사에 대해서 매우 동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커밍스에 의하면 미국의 장기간 독점적 헤게모니로 인하여 이 지역은 미국무성을 조정자로 하는 수직적 관계체제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국가는 반(半)주권국가로 전락하였으며 모두는 모두에 대해 은자(隱者)의 왕국이 되었다. 미국의 군사력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체제는 동아시아에서 유럽과 같은 수평적 협력기구가 출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APEC는 초보적인 협력 단계에 머물러 있는 느슨한 국가연합에 불과하다. 가령 1993년 밴쿠버(Vancouver) 회담의 성과는 동아시아의 국가 수반들이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최초로 자리를 같이 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는 커밍스의 관점이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일본과 동북아 이웃국가들(특히 한국과 대만)은 금세기에 들어 서구의 헤게모니체제 속에 기식해 왔으며,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포괄적인 자율성을 결코 실현한 일이 없었다. 이러한 체제가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언제 쇠퇴할 것인지에 달려있으며..."(225) 커밍스의 이러한 시각은 결국 일본도 중국도 아직은 미국의 적수가 아니며 1990년대 초에 유행했던 동아시아세기론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암시한다.

커밍스는 미국의 자유주의를 비판하겠다고 공언하며 이 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다면 특별히 진보적인 역사인식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필자는 그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미국적 자유주의 전통의 잔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았다. 그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을 역사적 현실로 수용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의 저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커밍스는 이 책에서 냉전주의자의 대결의식을 공박하기 위해 동아시아를 필요 이상 폄하하였다. 커밍스는 헌팅턴의 인종주의를 비판하였지만, 그 역시 다른 방식의 인종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커밍스의 냉정한 현실주의를 엿볼 수 있게 하는 한 귀절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대만에 미사일을 날리는 중국을 원하는가, 아니면 미국에게 양보를 하며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국을 원하는가?. 선택은 어렵지 않다."(171) 커밍스의 동아시아에 대한 배려는 주권국가를 향한 정언 명령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계속 비판을 가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의 논리에 더 가깝지 아니한가?